“〈직지〉 사랑이 불교사랑, 나라사랑”

이양우(66) 직지나라사랑 詩낭송회 회장



제2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

6월 19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

“직지 널리 알리는 게 가장 큰 포교”

2020년 ‘직지나라사랑시낭송회’ 결성

〈직지〉관련 시집 〈직지의 숨결〉 발간

“직지詩 없어, 원고청탁해 詩 모았죠”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그대는 아는가 / 흥덕사 양병산의 산자락 바람에 실린 / 무심의 깨달음인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 직지의 숨결을 // 〈중략〉 이 세상 끝까지 함께하는 / 직지의 숨결 영원하리라” 〈이양우 作, 직지의 숨결〉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직지심체요절)〉는 문화재적 가치와 더불어 불자들에겐 성보 중의 성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이제 우리만의 것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산술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인 〈직지〉의 가치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이다.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회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의 이양우 회장이다. 이 회장은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일이 불교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호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이하 시낭송회)는 6월 19일 오후 1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이하 시낭송대회)를 개최한다. 이 회장이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직지 알리기’의 실천이다. 충청북도 대회와 번갈아 열리는 대회로, 벌써 두 번째를 맞는다. 이와 같이 이 회장과 시낭송회가 시낭송대회를 열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대중이 〈직지〉의 존재, 그 내용과 가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직지〉를 널리 알리고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시낭송대회는 〈직지〉와 관련된 시를 낭송하는 대회로 〈직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낭송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예선과 본선을 치르게 된다. 자유시 1편을 낭송한 녹음파일과 낭송시 원문 한글파일을 제출해 예선을 치르고, 예선을 통과하면 후원단체인 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지정 시 33편 중에서 1편을 골라 본선에서 낭송한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녹음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예선 통과자 발표는 6월 7일 주인공인성협동조합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금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 원, 은상 2명에게는 각 상금 30만 원과 함께 상장과 시낭송가 인증서가 수여되고, 동상 3명에게는 각 상금 20만 원과 함께 상장과 상품이 수여되며, 장려상 5명에게는 상장과 상품이 수여된다.

이 회장은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통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직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직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고 왜 시와 시낭송대회를 통해 〈직지〉를 알리게 됐을까. 청주 출신인 이 회장은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2013년 8월에 주인공인성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협동조합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꿈을 키우는 주인공 리더십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 회장은 2014년부터 3년간 청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취약지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2017년부터는 3년간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을 진행했다. 그 교육 중에는 ‘시(詩)로 배우는 인성교육’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낭송 지도사를 양성하게 됐고, 시낭송 지도사들이 모여 시낭송회를 만들게 됐다. 2020년 4월, 회원 30여 명의 ‘주인공세상 시낭송회’가 만들어졌고 2020년 8월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시낭송회의 이름이 바뀐 것은 〈직지〉를 위해서였다. 시낭송회가 주최가 되어 대회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 제1회 대회는 주인공인성협동조합이 주최했다.



이양우 회장은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개최해 〈직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으로, 고려 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발간했다. 책은 백운 화상이 과거칠불에서부터 인도와 중국의 조사들이 남긴 말씀 중에서 참선 수행자들이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불교의 요체를 뽑아 엮은 것이다. 한국불교의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선불교 전통은 이 〈직지〉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직지〉의 ‘直指’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뜻을 담고 있다.

이 회장이 〈직지〉를 마음에 품기 시작한 것과 〈직지〉를 알리는 데 ‘시(詩)’를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직지〉의 내용과 의미 때문이다. 자신의 터전인 청주에서 태어난 ‘직지(直指)’라는 두 글자에서 ‘시(詩)’라는 글자를 떠올렸으며, 또한 자신이 평소에 큰 가르침으로 품고 살아가는 대행 스님의 “주인공에 믿고 맡겨라”라는 가르침과 백운 화상의 ‘직지’ 곧 “바로 가리키는 마음의 본성”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직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시낭송대회를 또 하나의 전달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회장은 올해 2월 〈직지〉를 찬탄한 시를 모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회 시집 〈직지의 숨결〉을 발간했다. 40여 명의 시인이 참여한 시집은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위한 것으로 〈직지〉를 노래한 시 60여 편이 실렸다. 이 시들은 이 회장이 지난해부터 직접 시인들을 섭외하고 청탁해서 모은 시이다. 이 회장은 〈직지〉와 관련된 시들로 직지시낭송대회를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직지〉와 관련된 시는 한두 편에 불과했다.

“‘바로 가리키다’라는 뜻의 ‘직지’는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직지의 가르침은 마음에 사랑과 정이 흐르고 사람과 사람이 소통과 협동이 되며 존중과 배려의 밝은 사회가 되는 길입니다. 〈직지〉의 본향 청주에서 두 번째로 ‘전국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를 개최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직지〉의 가치와 〈직지〉 안에 흐르는 정신을 알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직지〉에 담긴 가르침의 내용과 〈직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를 통해 알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심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10월에 열리는 제2회 충청북도 직지나라사랑 시낭송대회에서는 청소년대회도 함께 열 계획이다. 문의, 직지나라사랑 조직위원회 (043)221-3090



‘옴’ 자 만다라, 고려

액운막는 다라니와 부적들 판화로

‘마음의 백신–아시아 다라니와 부적’ 展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4월 20일~5월 30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특별전 ‘마음의 백신-아시아 다라니와 부적’을 개최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 네팔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역병 등의 국가적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의 백신’으로 사용했던 다라니와 부적 60점을 비롯해 인출할 때 사용했던 목판 20여 점, 다라니와 관련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인 제진언집 등 고서 20여 점 등 총 100여 점을 전시한다.

한국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옴’자다라니, 보협인다라니를 비롯한 조선시대 한글로 음사된 보협인다라니 등이 전시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민간 부적으로 인간의 모든 액을 소멸하고 만복이 깃들게 한다는 ‘백살소멸만복부’ 목판과 인출본, 칠성부, 삼재부, 호작도 부적, ‘금란장구부’, ‘산신부’ 등을 소개한다.

또한 중국 당나라 시대의 석경당에 새겨진 ‘대불정존승다라니’ 탁본을 비롯하여 일본의 가마쿠라시대의 ‘대수구다라니’가 최초로 공개되며, 티베트 소장품으로는 ‘수구다라니’ 등을 찍었던 판목들과 대형 능엄주 등이 전시된다.

예로부터 다라니는 불보살의 지혜와 복덕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범어로 된 주문으로, 원문을 번역하지 않으며, 이 주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서 이것을 외우면,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는다고 했다. 인도의 고대 철학 사상인 아트르바 베다와 인도의 고대 의학인 아유르 베다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인도, 티베트,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전파되어 발전했으며, 도교와 민속 신앙과도 결합되어 각 나라마다 독특한 부적으로도 발전했다.

전시기간에는 다라니와 부적 만들기 체험 템플스테이를 주말마다 운영하여, 박물관교육을 통해 전시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33)761-7885.

박재완 기자

죽비요법

본승은 건강이 안좋아 그동안 일제치하로부터 맥이 끊긴 불교 전통 의술을 발굴, 연구를 해오면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지구촌에서 오늘도 무수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어려울 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인가?
우리 불교가 지금 말법에 이르러 더는 발전할수 없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며 좁은 법당안에서 목탁만 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잘못된 식생활로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창출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병들어 고통받는 불자들만이라도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죽비 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비요법은 어려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죽비요법이란?

통증 및 혈을 두드리어 근육과 혈을 풀어주는 요법이라 합니다. 어느날 은사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죽비로 두들겨 통증을 없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체에 대한 지식과 혈에 관해 또는 불교 전통치료 처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치료법을 발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도인과 스님들이 침술등으로 치료를 하는줄 알고 있으나 의료법에 걸려서 마음놓고 치료를 할수가 없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묻혀가는 신비한 도술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 죽비요법을 발굴, 연구 개발한바, 침술보다 더큰 효력이 나타남을 경험을 통하여 알수가 있었고 하여 불가의 스님이나 일반 승도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우리 불교가 거듭날 수 있음에 뜻을 두고 소개하고자 하며, 한마디로 신비의 요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물론 수료 자격증까지 받을수가 있고 의료법에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천수천안 요법 ,무상심신법, 디딤법등 다각면에 요법을 경험하고 배울수가 있고 앞으로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여 세계적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수강생 모집 : 선착순 7명 ☘ 교육시간 1주일 , 수강료 500만원 ☘ 침식제공, 자격증 수료(1기생만 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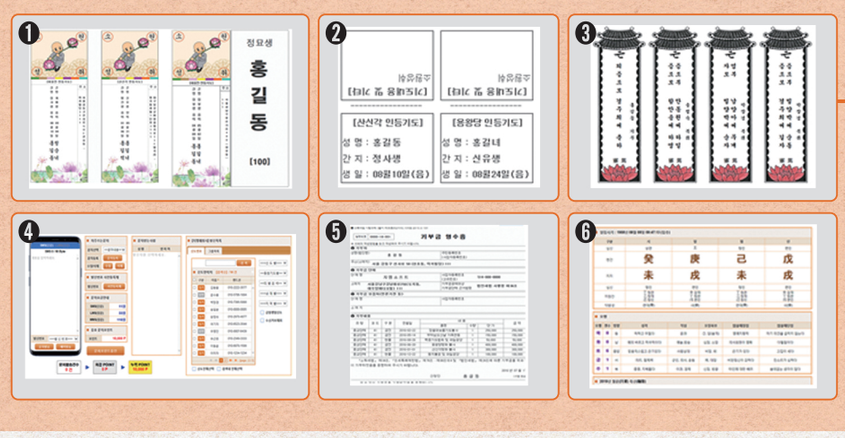
문의전화 033) 574-2387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석존합장

GmSoft GM since 2015 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